

전국연합학력평가 학교 자체에 맡겨

전북교육청, 오늘 오전 문제지 배부… 자기주도학습 자료로 활용 등

전북도교육청은 당초 24일 실시 예정이던 2020학년도 고1~3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각 학교에서 자기주도학습 자료로 활용하도록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온라인 개학 기간 중 학생 등교 불가 방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내 각 학교에서는 당일 자기주도학습 자료로 활용하거나

나 등교 개학 이후 자체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먼저 24일 활용할 경우 문제지를 오전 8시~10시 사이에 배부한다. 학생 대교 시간 분산과 함께 발열체크 등 학생 간 대면을 최소화해 배부하도록 했다.

특히 이날 문제지를 수령해 평기에 응시한 학생은 학교 자체 원격수업계획에 따라 출석 및 수업시수로 인정받

을 수 있다.

또한 문제지를 배부받지 못한 학생을 위해 학교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문제지를 탑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답 및 해설은 24일 오후 6시 이후 www.ebsi.co.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단, 전국단위 공동 체점과 성적 처리는 이뤄지지 않는다.

등교 개학 이후 학교별 자체 활용할

경우에는 24일에는 기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3일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문제지 배송을 완료했다”면서 “학생들은 문제지를 수령해 시험 시간표에 맞춰 풀어보면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예정인원은 1학년 104개교 1만6,805명, 2학년 105개교 1만7,265명, 3학년 106개교 1만7,220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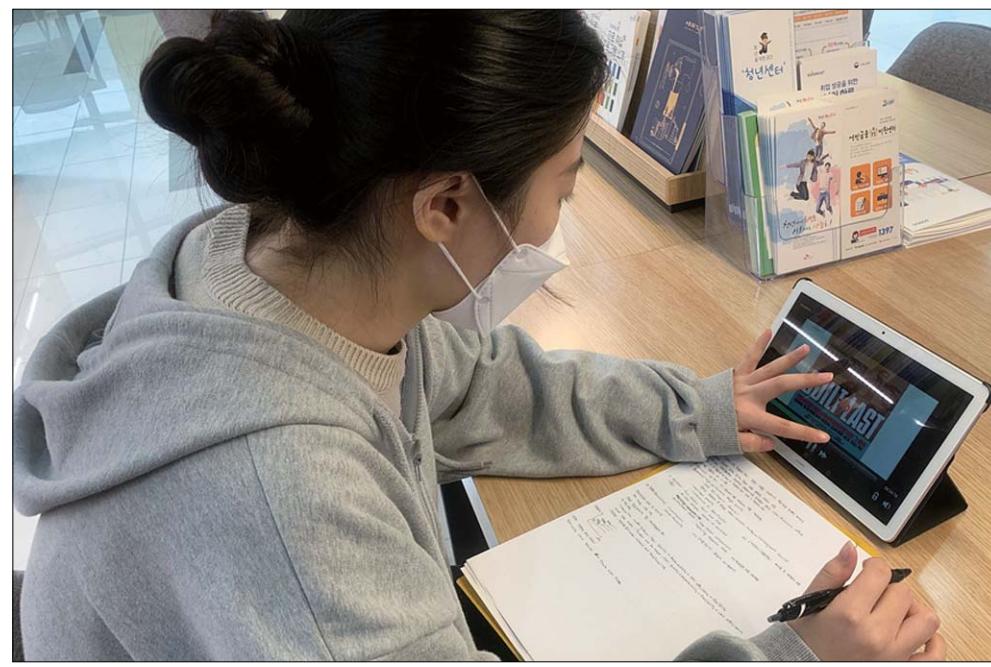
/장은성 기자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 온라인 진로취업 서비스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홍성덕)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학일자리센터의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는 재학생과 청년 구직자의 진로 설계, 직무역량 및 구직스킬 강화를 위한 수요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해 제공된다.

이번 교육은 △자기소개서 완성반; △면접 스石油化工 완성반; △NCS 직업기초능력 교육 프로그램과 직무 중심 채용 대비 △직무 분석 탐색반(미케팅/서비스 분야) 등으로 구성됐으며, 교육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늦춰진 채용 일정과 채용 규모의 축소에 따라 불안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을 위해 취업 스트레스 해소 및 구직상담, 입사지원서와 면접 컨설팅 등도 실시간 화상 시스템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홍성덕)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주교대, 비대면 상담 시스템 구축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온라인 수업으로 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비대면 개인상담·심리검사는 학생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전주교육대학교 인성교육원(인성교육원장 최병연) 주관으로 진행되며, CST 성격간접조사 및 개인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메일, 전화, 품 작성 등을 통해 상담신청을 하고 이를 전주교대 전문상담사가 확인해 온라인으로 학생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희망자에 한해 1:1대면 협약상담도 진

행할 예정이다.

김우영 총장은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 불안, 고립감, 무기력, 스트레스 등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며, “이번 비대면 상담이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교육대학교는 코로나19 사

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청취하고 있으며, 대체강의를 내실화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보이고 있다.

/장은성 기자

순창교육지원청, 청렴정책 본격 시행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택수)은 올해부터 학교시설 공사관리·감독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교육지원청은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위해 내진보강공사, 스포링클러 설치, 드라이버트 교체 등 노후시설개선 사업에 52억원을 투입했다.

한편 순창교육지원청은 반부패·청



적성초 공사현장 청렴홍보 현수막

인서 작성, 공사 준공 시 해피콜(부당 사례 확인전화) 점검, 청렴의지 담은 SMS 발송 청렴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첫!’ 온라인 학습법 특강 공개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5개 시리즈로 제작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CTL)는 비대면 수업 기간 중 재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온라인으로 만나는 학습법 특강 시리즈 ‘Learning Aid’를 인트라넷을 통해 공개했다.

이 특강은 매 학기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온라인으로 변경해 이뤄진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학습법 특강 ‘Learning Aid’는 면대면 수업의 제한에 따라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요구되는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강은 5개 시리즈로 제작됐으며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시간관리 특강’, ‘미루기는 그만! 학업지연 방지 특강’, ‘자기조절학습(SRL) 특강’,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활용한 알기쉽 특강’, ‘고위험 소수자를 위한 학습법 특강’ 등이 차례로 업로드 될 예정이다.

김은정 교수학습개발센터장(유아 교육과 교수)은 “이번 온라인 학습법 특강을 통해 재학생에게 학습 전략 습득의 기회가 제공돼 비대면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업이탈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온라인으로 만나는 학습법 특강 시리즈 ‘Learning Aid’를 인트라넷을 통해 공개했다.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이번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노하우를 토대로 학습법 특강 뿐 아니라 학습코칭 및 공모전도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학생들과의 접근성 및 상호작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중등 신규·저경력 교사 수석 교사와 ‘소통의 장’

전북교육청, 학습공동체 연구회 워크숍 갖고 성장 지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중등 신규·저경력 교사의 수업 성장 지원에 나섰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8층 회의실에서 중등 수석교사와 신규·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학습공동체 연구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수석교사와 신규·저경력 교사간 컨설팅을 기반으로 디종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수업성장을 위한 공감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수석교사 주도의 수업연구 및 컨설팅을 통한 전문성이고 체계적인 교육 활동을 공유하고, 관계 형성 및 회복을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인정적 정착 빙인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 정서

적 회복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수석교사와 신규·저경력교사 협동으로 성장 지원을 위한 분과를 편성하고 ▲2019 수석교사 수업나눔 멘토링 사례 발표(수석교사 신규·저경력교사) ▲2020 수업나눔 멘토링 운영 계획 협의 ▲2020 수석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방향 등을 모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워크숍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희망원을 접수한 후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 등 예방 관련 행정수칙을 준수해 진행할 것”이라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업에 대한 고민을 공유함으로써, 성장과 성찰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